

HANGUOYU
BAOKANYUEDU

全龙华 编著

韩国语报刊阅读

도시다. 중 동방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서비스. 국내 본사에서
의 미래 도시 하는 VIP를 위한 Gold Swallow Club과 나에서 시행
의 자인의 빌 Business Card가 마련돼 있다. 한편 동방항공 선을 편도
합들, 개성이 용시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 1회 무료 항공하고, 누적
이다. 이용시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1회 무료 제공한다. 또
동방항공의 출장객들을 위해서는 동방항공 비즈니스 패권에 대해 상해



责任编辑：金美淑

封面设计：金胜铉



ISBN 7-5634-1796-6



9 787563 417964 >

ISBN 7-5634-1796-6/H·383 (民文)

定价：38.00元

韩国语报刊阅读

全龙华 编著

延边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国语报刊阅读/全龙华编著.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03. 8

ISBN 7 - 5634 - 1796 - 6

I. 韩… II. 全… III. 朝鲜语 - 阅读教学 - 自学参考资料 IV. H559. 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3) 第073629号

韩国语报刊阅读

编著: 全龙华

责任编辑: 金美淑

装帧设计: 金胜铉

出版发行: 延边大学出版社

社址: 吉林省延吉市公园路105号 邮编: 133002

网址: <http://www.eabook.com> (东亚书城)

E-mail: eabook@eabook.com; eabook@hotmail.com

热线电话: 0433-2965690 传真: 0433-2732434

印刷: 延吉市金马彩色印刷厂

开本: 890 × 1240毫米 1/32

印张: 16. 875印张 字数: 500千字

印数: 1500册

版次: 2003年8月第1版

印次: 2006年8月第2次

ISBN 7 - 5634 - 1796 - 6/H · 383 (民文)

定价: 38. 00元

编者的话

韩国语报刊阅读课是韩国语本科高年级学生必修课之一。这门课对学生接触和掌握现实生活中使用频率高的词汇，接触一些新词及外来词有很大帮助。通过报刊阅读，学生还可以了解当今韩国社会政治、经济、文化等社会各方面的知识。

本书是大专院校韩国语本科高年级报刊阅读课教材，也可以供具有相应水平的韩国语学习者参考。

本教材从韩国报刊如《朝鲜日报》、《东亚日报》、《中央日报》、《韩国经济》等十几种报纸中，精选了150多篇各种不同题材的文章。不仅包括韩国政治、经济、文化等方面的内容，也包括了科技、教育、体育、军事、外交等方面的内容。

本教材共设48课，每篇课文之后都列出了生词表，为了扩大学生们的阅读量，在每篇课文之后都附有阅读文章。

为了延长教材的使用寿命，在选材时注意选用了那些时间性不太强的文章。任课教师可以根据当时的情况适当补充一些有关的文章。

最后要说明的一点是：我们选用的文章都是韩国报刊中的原文，因而文章中某些内容、观点以及某些用语不完全切合我国实际，但考虑到报刊阅读课本身的特殊性质，我们还是保持了原貌。

因本人水平有限，编写时间又很仓促，疏漏之处在所难免，敬请读者不吝赐教。

编 者

2003年7月

차 례

제1과 한국정치의 세계화 방향 (1)

과의 열독 (1) 한국정치 5대 개혁과제 (7)

(2) 정치개혁의 조건 (11)

제2과 대통령과 지배인 (14)

과의 열독 (1) ‘CEO 대통령’을 (21)

(2) 정치를 바꾸자……21세기형 리더십 (23)

제3과 대권과 당권 사이 (27)

과의 열독 (1) 당권-대권 분리 (32)

(2) 이젠 정당구조 개혁이다 (34)

제4과 국민참여경선제 대선후보도 국민손으로 (38)

과의 열독 (1) 국민경선, 그 빛과 그늘 (43)

(2) 국민경선 관전법 (46)

제5과 국회가 ‘국정의 중심’돼야 (49)

과의 열독 (1) 저효율 국회 (54)

2 한국어신문강독

(2) 일하는 국회가 돼라 (56)

제6과 한국경제 환상 버려야 (59)

과의 열독 (1) 한국경제 IR의 내실화 (66)

(2)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69)

제7과 수출전략 새로 짜야 한다 (73)

과의 열독 (1) 수출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때 (80)

(2) 수출은 한국경제 활로다 (83)

(3) '수출만이 살 길' 언제까지 (85)

제8과 기술개발과 벤처기업 (88)

과의 열독 (1) 벤치가 이끈 한국형 기업문화 (93)

(2) 벤처정책의 개선방향 (95)

제9과 한국증시의 선진시장群 편입 (98)

과의 열독 (1) 가치투자와 한국증시 (102)

(2) 주가는 경제 성적표 (105)

제10과 '공기업 민영화'의 바른 방향 (108)

과의 열독 (1) 공기업 민영화 후퇴 안된다 (113)

(2) 민영화가 유일 대안일까 (115)

제11과 “정보공유 못하는 기업은 망한다” (118)

과의 열독 (1) 무자비한 약육강식 정글법칙 경영 (122)

(2) 특허는 기업을 지키는 무기 (125)

제12과 재벌개혁 후퇴해서는 안된다 (128)

과의 열독 (1) 재벌개혁 다시 '원 위치' (133)

(2) 재벌개혁 제대로 해야 (135)

(3) '점진적, 자율적 재벌개혁 하겠다' (136)

제13과 농업개방 어떻게 볼 것인가 (139)

- 과외 열독 (1) 쌀 정책 재검토할 때다 (144)
- (2) 쌀에도 ‘예외 없는 세계화’가 (146)

제14과 동북아 중심이 되려면 (149)

- 과외 열독 (1) 동북아 중심대책 재고하라 (154)
- (2) 중심국 열등감서 벗어나라 (156)

제15과 과학기술과 국운 (160)

- 과외 열독 (1) BT 산업과 국가경쟁력 (165)
- (2) IT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 (168)

제16과 세계 3위의 지식경제국가 (172)

- 과외 열독 (1) 한국은 선진국 (175)
- (2) 지식, 기술투자 효율성이 문제다 (178)

제17과 인제는 국력이다 (181)

- 과외 열독 (1) 인적자원이 경쟁력이다 (186)
- (2) 고급인력은 21세기 국가경쟁력 (189)

제18과 ‘학벌주의’를 없애려면 (191)

- 과외 열독 (1) 시장법칙과 학벌퇴치 (196)
- (2) 학벌주의 타파 시장에 맡겨라 (199)

제19과 미래전략 ‘교육’에 열쇠 있다 (201)

- 과외 열독 (1) 공교육 문제의 해법 (206)
- (2) 입시와 평생고등교육 (209)

제20과 한국인 교육관 고쳐야 (212)

- 과외 열독 (1) 가정이 망가지는 교육 (217)
- (2) 과잉교육은 이제 그만 (219)

제21과 ‘조기유학’ 얻는 것과 잃는 것 (222)

4 한국어신문강독

과의 열독 (1) 조기유학 보내야 하나? (226)

(2) 조기유학과 엄마의 환상 (229)

제22과 고교평준화 정비할 때 (233)

과의 열독 (1) 평준화를 깨버리자 (239)

(2) 고교평준화 유지돼야 (241)

제23과 “개혁 않는 상아탑은 무너진다” (244)

과의 열독 (1) ‘경쟁력 없는 교수’ 이젠 못버틴다 (253)

(2) 연구-투자-교육질 트리플 낙제점 (256)

제24과 한국인 영어실력의 현주소 (260)

과의 열독 (1) 영어 학습 백태 (267)

(2) 영어 마스터 비법은 없나 (273)

제25과 “고층아파트 시대 이제는 졸업하자” (277)

과의 열독 (1) 도시화 가속, 토지개발 어떻게? (281)

(2) 6대 분야 2020년 목표, 환경팀 제안 (283)

제26과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 방지에 달렸다 (285)

과의 열독 (1) 난개발 걱정되는 그린벨트 해제 (289)

(2) 그린벨트 해제, 막개발 어찌 막나? (291)

제27과 동북아 환경협력 시급하다 (293)

과의 열독 (1) 중국사막 조림 지원해 황사 막자 (299)

(2) 중국에 나무 심으러 가자 (301)

제28과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고요?” (303)

과의 열독 (1) 평평 낭비되는 현장 (308)

(2) 주부 한인희 씨의 ‘물아끼기’ (310)

제29과 ‘사이버화폐 시대’ 개막 (313)

과의 열독 (1) 안방서 미대학 학위 땀다 (318)

(2) 영역과과 ‘통합미디어’ 시대 온다 (320)

제30과 인터넷 혁명과 우리의 선택 (323)

과의 열독 (1) 기술발전과 미래사회 (328)

(2) IT 선진화의 또 다른 길 (330)

제31과 대면의 기회와 장소 (334)

과의 열독 (1) ‘모니터 보기’와 ‘얼굴 맞대기’ (339)

(2) 문화환경균형을 위하여 (342)

제32과 나노와 바이오 기술의 결합 잇따라 혈판에

‘초소형 잠수함’ 투입... 암세포 찾아낸다 (345)

과의 열독 (1) 나라마다 나노 기술 이용 새 반도체

개발 박차 (351)

(2)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나노 상품’

속속 등장 (354)

제33과 생명과학 변경 넓힌 개가 (358)

과의 열독 (1) 인체 거부반응 유전자 제거된

복제돼지 탄생 (362)

(2) 과학자-작가가 내다본 21세기 (364)

제34과 ‘냉동인간’ 되살릴 수 있나 (368)

과의 열독 2091년 되살아난 냉동인간 (373)

제35과 KDX-Ⅲ에 美 이지스 전투체계 선정 (378)

과의 열독 (1) ‘꿈의 구축함’ 세계 5번째 보유 (382)

(2) 미 이지스 전투체계 선정과 의미 (384)

제36과 외부 문화유전자 적극 받아들여야 강대국 된다 (386)

과의 열독 (1)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의 전 지구화와

다원성' (391)

(2) 다국적기업 한국인 임원 토론 (394)

제37과 추락하는 한국 이미지 (398)

과외 열독 (1) IPI 감시대상 된 한국언론 (403)

(2) 부끄러운 '언론탄압 감시대상국' (405)

제38과 '韓流' 시너지효과 극대화하자 (407)

과외 열독 (1) 한류열풍, 지속성이 과제다 (411)

(2) '한류'를 산업화 하자 (413)

(3) 한류의 참의미를 살리려면 (414)

제39과 여성, 오늘이 있기까지 (417)

과외 열독 (1) 한국서 여자로 산다는 것 (421)

(2) 오늘 여성의 날 '흐림' (423)

제40과 과격 폭력시위 악순환 고리 끊자 (427)

과외 열독 (1) 거리의 폭력집회에 멍드는 경제 (433)

(2) 외국은?/준법데모... 폭력이 없다 (436)

제41과 월드컵에서의 첫승 (439)

과외 열독 (1) 이겼다, 대-한국 (444)

(2) 월드컵이 우리에게 준 것들 (446)

제42과 한국 움직한 히딩크의 매력 (449)

과외 열독 (1) '히딩크 신드롬'과 한국병 (454)

(2) 신화의 완성을 위하여 (456)

제43과 한국위상 드높인 '황진이' (459)

과외 열독 (1) 사극 전성시대 (464)

(2) 한국영화 봄 거품 아니길... (467)

제44과 우리 통일방안은 (470)

과외 열독 (1) 통일과 헌법 (474)

(2) 남북화해 큰 틀 흔들림 없어야 (477)

제45과 한중 수교 10년의 과제 (479)

과외 열독 (1) 중국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484)

(2) 한중 비즈니스 이제는 'soft'이다 (487)

(3) 대륙에 심은 한국혼 (490)

제46과 일본, 할 수 없는 나라? (495)

과외 열독 (1) 과거사 풀어야 한일관계 풀린다 (499)

(2) 국화와 칼 사이 (501)

(3) 일본추락의 진짜 이유 (504)

제47과 한미 동맹 계속 필요하다 (507)

과외 열독 (1) 한미 공조 세 가지 난관 (511)

(2) 진정한 한미 동반자 관계 (514)

제48과 문명으로서의 유로화 (517)

과외 열독 (1) 유로화 도입 1년 (522)

(2) 달러화의 방향은 어디로 (525)

제 1 과

한국정치의 세계화 방향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새 천년이 열린 지금, 한국정치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정치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한국정치의 현주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내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요소를 자꾸만 생성해내는 '소모적인 정치형태'를 되풀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대 지방자치선거와 국가의 운명을 가르게 될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에 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체제를 선택하게 됐다. 선진 제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했던 보호무역주의 대신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에 기초를 둔 자유경제체제를 표방함으로써 '무한 자유무역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2 한국어신문강독

그리고 세계경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비준, 유럽공동체(EC)의 유럽연합(EU)으로의 발돋움,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출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세계화(Globalization)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적 세계화의 철학적 기초를 명확히 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대국가가 국제화에서 추구했던 국가목표가 부국강병이었다면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계화는 지식·정보·기술·문화·교육·환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국가경쟁력 강화만이 아닌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 세계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가.

첫째, 세계화는 생존전략으로서의 시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단순히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세계화는 개혁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등을 제거하고 타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적인 것이어야 한다.

셋째, 국가발전의 역사적 의의를 가져야 한다.

외형적, 형식적인 경제적 풍요를 넘어 내면적·실질적인 의미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데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를 뒤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미래사회에 대해 한발 앞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민족적 비전과 희망이 국민 속에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치가 개혁의 주체로서 변화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속에 한국을 심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정당의 구조와 관행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야도 없을 줄 안다.

우선 정당구조를 살펴보면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인물중심으로 모여든 ‘인물중심의 정당’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신뢰 속에 보다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인물중심의 정당’에서 탈피해 ‘정책정당’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정부패·살인사건·비리의 사례를 보여주는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연대감의 붕괴라는 지적이 많다.

사회의 실질적인 주도세력인 정치·경제·교육·언론계가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상실하고 ‘나’라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때 우리 사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낙오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실 속에서 ‘나’와 ‘우리’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연대의 정치가 이 땅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인물과 정치세력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논리로 ‘국가의 중심질서’를 잡을 것이고 어떠한 논리로 ‘국가의

4 한국어신문강독

주변질서'를 삼아 대세의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 정치인도 이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정파와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이 시대가 잉태하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 우리 시대가 잉태하고 있는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나갈 것인지, 우리가 물려받은 세계보다 더 훌륭한 세계,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단 어

현주소	【명】	现在状况
합의점	【명】	意见一致, 协商
도출하다	【타동】	得出
갈등	【명】	纠葛, 矛盾
자꾸만	【부】	接连多次, 总是
생성하다	【자,타동】	生成, 产生
소모적	【명】	消耗, 耗费
과언	【명】	过分的话
지방자치선거	【명】	地方自治选举
소망	【명】	愿望, 希望
자문하다	【자동】	自问
입각하다	【자동】	立足, 立脚
자국	【명】	本国

채택하다	【타동】	采取
보호무역주의	【명】	保护贸易主义
표방하다	【타동】	标榜
돌입하다	【자동】	功入, 功进, 冲进
무한자유무역경쟁시대	【명】	无限量自由贸易竞争时代
북미자유무역협정	【명】	北美自由贸易协定
유럽공동체	【명】	欧洲共同体
유럽연합	【명】	欧洲联盟
발돋움	【명】	踮, 跷脚
아태경제협력체	【명】	亚太经济合作体
출범하다	【자동】	开船, 出航
세계무역기구	【명】	世界贸易机构
기틀	【명】	要害, 关键
통합되다	【자동】	合并, 归并
기조	【명】	基调, 主调
대안	【명】	对策
부국강병	【명】	富国强兵
복합적	【명】	复合, 混合, 合成
차원	【명】	很高的水平, 很宽的范围, 立场
부응하다	【자동】	响应, 副应
추진되다	【자동】	推进, 加紧进行
문호	【명】	门户
관행	【명】	惯行
제거하다	【타동】	清除, 消除
생산적	【명】	生产性
풍요	【명】	富饶, 富裕
내면적	【명】	内面的, 内在的
끌어올리다	【타동】	提高